

지자체별 특성 살린 과학기술 육성 지원

지역과학기술위 권한 강화

광주 주요기관 상시 협의체 구성

전남 전문직위 도입·채용 확대

정부가 전국 지자체들의 특성에 걸맞은 과학기술 발전 역량을 복돋우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 정부 출연 연구원과 테크노파크 등 과학기술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과학기술 전문직 제도 도입 및 관련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일 제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별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

천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17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 실질적으로 지역 최상위 과학기술심의기구로 활동하도록 위상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의 대상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정책,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예산 배분, 신규 R&D 사업 등이다.

또 각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정책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Think-tank'도 육성하기로 했다.

서울은 기존 여러 기관에 산재된 R&D 업무와 기획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체 R&D 전담기관을 보유한 부산·경기는 기존의 R&D 사업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예측, 지역특성화전략 수립, 미래신성장동력육성 등 기획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 자체 R&D 전담 기관이 없는 타 시·도는 미래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지원단 사업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전략, R&D사업 기획 전문 기관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남을 비롯한 전북·부산·대구·울산·충남·경남·경북의 경우 자체 R&D 정보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된 정보를 활용해 R&D 기획·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종 과학기술 전문 기관과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광주·전남·세종은 지역 정

부 출연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자체 출연기관 등 주요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한다. 울산·충북·경북은 특화된 산·학·연 포럼을 구성하여 지식·기술의 교류를 촉진한다.

전남과 부산, 대전, 충북은 과학기술 담당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과 전북, 경남은 중앙부처와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정책적 협력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대전·세종은 과학기술 전담부서가 여러 부서별로 분산된 지역 과학기술업무 전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경북의 경우 R&D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초 지자체 공무원의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배양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100일 개화 무궁화 국내서 원리 밝혀

저온 현상으로 유전체 이상 증가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무궁화의 유전체를 해독해 100일 이상 지속해서 꽃이 피는 기제(메커니즘)를 밝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민·권석운 박사, 서울대 최도일 교수, 경상대 염선인 교수 공동연구팀은 무궁화의 유전체·전사체 8만7603개를 분석해 무궁화가 배수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수체는 유전체가 2배, 3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으로, DNA가 한 쌍으로 이뤄진 인간은 2배수체이다. 식물에는 배수체가 흔한데 그동안 무궁화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염색체 합량을 관찰해 배수체 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이 무궁화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무궁화는 같은 아욱과에 속하는 카카오와 3000만년 전 분화됐으며, 목화와는 2200만년전에 종 분화가 일어났

으로 나타났다.

목화와 종 분화가 일어난 이후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급속도로 떨어졌으며, 한반도의 평균 기온도 무궁화 생육에 적절한 온도인 30도보다 낮았다.

이 같은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 무궁화의 생식세포 감수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의 배수체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배체화 현상(배수체화된 유전체가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배체로 돌아가려 하면서 유전자의 손실이 일어나는 현상)이 동반되면서 무궁화에서 개화와 관련된 유전자가 다른 식물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개화 시기는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십 일에 이르지만 무궁화는 배수체화 현상을 거듭하면서 지속해서 개화하는 표현형질을 얻게 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국서 부는 드론 배달 열풍

세븐일레븐 등 내년 확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미국에서 드론 배달을 확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드론 배달서비스 회사 플러티(Fliirty)는 지난달 77건의 드론 배달이 이뤄졌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네바다주 리노의 세븐일레븐 매장 근처에 사는 선택된 12명의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주말 드론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

인기 있는 물건은 따뜻한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 처방전이 필요없는 아스피린 같은 약이었다. 플러티는 아픈 아이를 차에 태우고 편의점에 약을 사러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과 플러티는 지난 7월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 양사는 내년에 드론 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아마존도 드론 배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알파벳은 드론 배달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워'를 통해 지난 9월 멕시코 음식 체인 치폴레의 부리토를 버지니아공대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배달했다.

알파벳은 식품·음료를 6달리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아마존은 지난주 영국에서 드론으로 팝콘을 날라 상업적 배달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자기장 연구 일본 위성 발사 지구자기장 연구를 수행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JAXA ERG' 위성을 탑재한 엡실론 로켓이 지난 20일 가고시마현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노트7 최대 14만대 미회수

이달까지 교환·환불 가능

삼성전자가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갤럭시 노트7(이하 갤럭시 노트7) 사용을 강제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연내 강행하

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연말을 앞두고 회수율이 급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갤럭시7 교환·환불 프로그램을 이달까지 운영하겠다고 안내했기에, 교환·환불을 미뤄온 소비자들이 기한이 지나기 전 대거 매장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내년 1월 3일 '유성우 쇼' 엔케 혜성 2월 관측 가능

내년 밤하늘엔 3년을 주기로 볼 수 있는 엔케 혜성과 부분월식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1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천문현상에 따르면 내년 3월 10일 오전 2시 25분께 엔케 혜성(2P/Encke)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인 근일점을 통과한다. 엔케 혜성의 주기는 3.31년으로 혜성 중 가장 짧다.

근일점을 지나는 장면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저녁 하늘에서 2월 한 달간 근일점을 지나기 전까지 천체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8월 8일 서울 기준으로 오전 2시 22분에는 지구의 본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부분월식이 일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영식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전 진행과정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 오전 2시 22분에 부분월식이 시작돼 3시 21분에 최대가 되며 4시 19분에 끝난다.

1월과 10월에는 별뿔별이 비처럼 내리는 '유성우' 쇼가 펼쳐진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쌍둥이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꼽히는 사분의자리 유성우를 1월 3일 밤하늘에서 볼 수 있다.

극대기인 3월 오후 11시에는 달도 지고 없어 유성을 관측하기 좋다.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10월 21일 저녁부터 22일 새벽까지 많이 떨어진다. 유성우의 복사점(유성우의 궤적이 시작되는 중심)인 오리온자리가 높이 올라오는 22일 자정 이후에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1시간에 20개의 유성을 관측할 수 있다.

6월 15일 초저녁 남동쪽 하늘에서는 토성이 충(행성이 태양과 지구를 지나는 일직선 상에 태양-지구-행성의 순으로 놓이는 상태)을 이뤄 밤새도록 토성을 관측할 수 있다. 천체망원경을 사용하면 토성의 기술어진 고리도 자세히 볼 수 있다. /*연합뉴스

급, 싸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남평, 최고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에서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80만원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층 지상4층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61개
- 법인체 인수 가능
- 동업 운영 하실분 환영
- 리모델링 중 (4억예산)
- 매매 - 협의
- 대출 - 8억 있음
- 감정가 - 현재 15억
- 주인직매 H.010-3605-5000